

협회소식

협회장동정



▷ 2월 6일: 화성시낙농
발전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2월 9일: 제9차 이천한
우회 정기총회 참석

▷ 2월 21일: 여주낙농검
정회 10주년 정기총회 참석



젖소 선형심사요원 양성교육 실시



본회에서는 심사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심사
요원 확충에 따라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초까
지 선형심사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규심사요원 및 기존심사요원의 눈높
이교육으로 심사 신뢰성 제고 및 국내 젖소유전
자원 평가의 정확성 기여를 위한 형질 추가를 목
적으로 실시하였고, 심사의 이해와 선형평가 설
명에 대한 이론교육을 비롯한 눈높이 교육을 우
수우군 22목장을 대상으로 미국식 선형심사법
(16개 1차 형질, 2개의 2차 형질)에 따라 심사
두수 200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2006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본회는 2006년 2월 3일 제 1회 이사회를 개최
하였다. 보고사항으로는 회원가입현황보고가

있었다. 주요 부의안건으로 나온 사항 중 자산
취득 승인의 건, 회원제명(자격변경)의 건, 선거
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촉의 건은 승인 통과되었
으나 급여규정 개정의 건, 특별상여금 지급의
건,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결산 승인
의 건,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
승인건은 부결되어 2월 17일 재 이사회를 갖고
미결된 안건에 대하여 승인 통과 시켰다. 그러나
임원의 정수 조정 건은 아직 의견을 조율하지 못
한 채 통과되지 못하였다.

회장 및 이사 후보자접수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 후보자
접수를 2006년 2월 16부터 17일까지 양 이틀에
걸쳐 접수받고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지
었다.

◆ 200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사 선거실시

본회는 2월 27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임·
대의원을 비롯한 회원, 언론사기자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 및 회
장, 이사선거를 실시하였다.

박순용 회장은 “회장선거로 해서 인사는 생략



제1회 가축개량대상 수상자 (좌로부터 허증 대표, 윤희진 대표, 박순용 회장, 김인필 대표)

한다며 임기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임원 및 대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회원과 관계기관 단체에도 감사드립니다" 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고, 2005년도 감사보고 및 회원가 입현황보고 외 12개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부익안건으로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심의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2005년도 분회 종축 개량사업 및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원도청 계재철 사무관 외 24명에 대하여 협회장 표창이 있었으며, 특히 본회는 올해부터 가축개

량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생산성을 향상시켜 타의 모범이 된 농가에 대하여 축종별(한우, 젓소, 종돈)로 1인씩 생산자단체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가축개량대상을 시상하였으며 제1회 가축개량대상의 영광스런 수상자는 한우부문 한창목장 김인필 대표, 유우부문 엑셀란목장 허증 대표, 종돈부문 주)다비육종 윤희진 대표가 각각 선정되어 수상영예를 안았다.

한편 한국종축개량협회 16대 회장에 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조병대 후보가 선출되어 제16대 회장으로서 직무를 3월1일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 선출된 제13대 이사에는 한우부문 이규석(경북-부회장), 우영목(경기), 최부규(강원), 장성운(전북), 임경철(경남), 전국한우협회장 남호경 / 유우부문 박충남(전남-부회장), 김정대(경기), 김희동(경기), 이종화(경북), 이지원(충남), 장호(경기) / 종돈부문 이석주(전남-부회장), 이병모(충남), 이봉재(충북), 이희득(경기), 임성주(전남), 박한용(경북) 이사를 새로 선출하였다.

▣ 조병대 신임회장의 주요 학력 및 약력



(94.2- 97.12) 일본 동경 농업대학 가축육종학 축산학박사
(97.7- 97.12) 축산기술 연구소 축산기술부장 역임

(98.3- 00.3) 축산등급판정소장 역임
(00.3- 02.3) 낙농진흥회 전문역임
(04.8- 현재) 천안연암대학 강사

여주낙농검정연구회 10주년 정기총회 개최



여주검정회는 지난 2월 21일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0주년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를 갖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10년 후 더욱더 발전된 검정회가 될 것을 기약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월목장(김영필, 배순남)이 선형심사최고득점우(84점)상과 선형심사최우수목장상을 받는 영예를, 대건목장(허효만, 조명자)이 유량 15,037kg으로 305일 최고유량 생산우상을, 동두목장(신재범 여주검정회장)이 유량 114,799kg으로 생애최고 유량생산우상을, 향원목장(김군용, 이경순)이 유량 11,197kg으로 305일 최고산유량목장상을 수여 하였다. 또, 검정회를 위하여 도움을 준 회원농가에게는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특히 이날 여주검정회가 결성되고 10년을 검정농가와 함께 해 온 김정복 검정위원회에 공로패 시상, 폐업을 하여 떠나는 회원농가에게 아쉬움을 담은 패를 전하기도 하였다.

여주검정회 10주년을 축하 하러온 충주검정회 이명근회장(태명목장)은 올해로 충주검정도 10주년을 맞이하였다며 항상 본보기가 되었던 검정회가 여주검정회였고 더욱더 발전해서 꾸

준히 여러검정회의 본보기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여주군청 이상춘 농정과장은 방역, 조사료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항상 자부심 갖고 선구적 역할을 하는 여주검정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여주군 농업기술센터 장해중 소장은 축사에서 미생물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장기적으로 전문경매장, 지역품평회장설립 추진에 장기적으로 힘쓰겠다는 말과 함께 축사를 마쳤다.

업계소식

◆ 제3대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 선출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06년 2월 24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해 제3대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에 현 남호경 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선출된 남호경 회장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전국한우협회를 이끌게 된다.

남호경 회장은 영남대학교 축산학과(73.2)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전국한우협회장(03-현),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장(05-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04-현), 축산발전심의회원(05-현)으로 활동하고 있다.

◆ 축산신문사 '축산지도자와의 조찬간담회' 개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축산분야가 농촌의 주 소득원인 만큼 농정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한·미 FTA 협상에서 축산물이 민감품목으로 예외인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FTA에 '올인'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법개정도 기술적으로 법적 용어만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지난 2월 20일 축산신문사 주최로 열린 '축산지도자

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밝혔다. 특히 농지법개정이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인 만큼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미 FTA와 관련, 축산물이 반드시 민감품목으로 예외인정을 받을 있도록 하고 일정 물량을 쿼터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며 관세율을 최소한만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협상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며 축산 등 주요 품목단체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FTA를 계기로 FTA기금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기에도 축산인들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축종별로 청정 로드맵을 작성, 이 일정대로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농가, 단체, 산업계가 혼연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외에 가축분뇨문제는 축산업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지도자들은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지난 94년 UR협상때 처럼 쌀을 지키려다 축산을 내어주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 대구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서변점' 개점

대구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우효열)은 지난 2월 20일 대구 북구 서변동 899-1번지 현지에서 조합 임직원과 지역조합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로마트 서변점을 개점하고 영입

에 들어갔다.

하나로마트 서변점은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각종생활품과 문구류를 취급해 지역밀착형 마트로 인근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는 생활매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육코너에서는 대구축협 대표브랜드로 KS인증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을 획득한 팔공상강우와 팔공포크를 취급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우효열 조합장은 “이 지역은 소매유통 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을 공급해 하나로 마트의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취급품목 가운데 농축산물은 지역 농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취급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21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원, 낙우회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유생산의 주체인 농가 스스로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낙농비전수립, 생산자 주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자주정신을 확립하자는 낙농주권 회복을 바탕으로 낙농의 주인으로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주체로서 단합만이 살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의사록을 원안대로 접수하고, 2006년도 주요 보고사항으로 낙발협 논의동향, 한·미 FTA 대응활동, 오는 24일 개최되는 낙농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등에 대한보고가 있었다.

부의안건으로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협회 재정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결원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경기 이한규(서울우유), 신주호(경기남·진흥회), 강원 이근학, 전남 허외양 이사를 선임하고, 경기(서울우유) 1명은 해당 지역에서 선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유업체의 쿼터 인허에 대한 대응활동,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집행부로 요청했고, 또한 집유체계 개편 등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농가들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전 농가가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단합과 결집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부여축협 ‘한우등록우 경매시장’ 운영

부여축협(조합장 박승균·사진)이 운영하고 있는 송아지등록우시장이 한우등록우를 찾는 농가들로부터 인기를 끌며 빠르게 정착해가고 있다. 특히 부여군과 부여축협은 가축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등록우를 일반 한우와 차별화된 가격으로 매매될 수 있도록 한우등록우 경매시장을 운영해 출장두수와 매매가 늘어나면서

등록우송아지 공급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15일 등록우 경매에서는 부여축협 생축장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와 숫송아지 15두와 번식우 농가가 생산한 5~7개월령의 송아지 15두 등 총 30두가 경매에 들어가 전체가 매매되어 등록우 송아지의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다.

박승균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친환경 축산과 안전축산을 생산에 주력해서 소비들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 있는 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축협은 이번 등록우 경매를 통해 송아지 등록우 시장으로서의 정착가능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2개월에 1회정도 정기적인 경매를 통해 부여축협 가축시장을 등록우송아지 공급중심 우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 '855 축산농가 선정 농장출입구 소독기 설치사업'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축산농가의 소독기 설치사업에 25억6천5백만원을 투입해 모두 8백55개 농장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1청 관할지역 축산농가에 4백74대, 2청 관할지역 농가 3백81대를 각각 설치한다.

경기도는 구제역 등 병원체 유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 차량에 대한 농장별 차단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독시설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경감 및 방역의식을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 전업규모 농가를 중점 지

원하며 도비 30%, 시군 비 30%, 자부담 40%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 대상농가는 ▲축산업 등록 농가와 친환경 축산 직불제 참여농가 ▲본인소유의 농가 및 5년 이상 축산업을 계속한 농가 ▲브랜드, 계열화농가, 모돈 일괄 사육농가, 착유우농가 등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시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을 작성해 선정토록 시군에 지시했다. 또한 향후 AS등이 수월토록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감안, 마을별로 동일 기종을 선택토록 유도해 나감은 물론 농가에서 업체와 계약 시 보증 및 AS기간을 2년 이상을 명시하고 AS기간 이후에는 농가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인 3월부터 5월 이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조치했으며 출입구를 한곳으로 제한할 수 없는 농가는 농장 방역상황을 종합점검하여 주 출입구에 설치하고 나머지 출입구는 차단기 등 출입통제 가능시설을 설치, 농장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조충희 축산과장은 “가축질병 발생은 축산업에 있어 최악의 상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농장통제와 방역으로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축협 조합장 선거결과

⇒ 포항축협은 지난 15일 두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이외준(전 조합감사·전 포항한우협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 강진축협은 두 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이종배(전 조합 이사·현 강진한우협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 안성축협은 지난 14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김상수 후보(전 안성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가 당선됐다.

⇒ 영덕울진축협은 지난 11일 후보를 마감한 결과 신길대 현 조합장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재선됐다.

◆ 경남 하동군 '2006년도 영농설계 한우교육' 실시

하동군(군수 조유행)은 지난 14일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2백여명의 관내 핵심 한우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영농설계 한우교육을 실시하고 솔잎한우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한우가격 동향 및 향후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조유행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하동솔잎 한우브랜드가 소비자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하고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안전 축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에서도 하동솔잎한우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우협회홍천군지부 정기총회 개최

홍천한우협회가 신임지부장으로 현 부지부장인 조남웅씨를 선출했다.

홍천한우협회는 지난 2월 13일 홍천온천 회의실에서 김원종 군의장, 홍병천 홍천축협장을 비롯해 회원농가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기를 마친 변경현 지부장을 대신해 조남웅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박종기씨, 감사에 이시재씨 등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변경현 전임지부장은 "회원이 화합하고 뭉쳐 오늘의 홍천한우협회의 명성을 지켜왔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신임 조남웅 지부장과 전회원이 지금까지 함께 노력한다면 홍천한우협회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남웅 신임지부장 또한 다른 무엇보다 회원간의 단합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회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언제나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홍천한우협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회원간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브랜드인 홍천늘푸름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 전국축산발전협의회 '2006년 제1차 협의회' 개최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에 윤상의 여주축협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한 부회장의 경우에는 1인에서 2인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해 홍병천 홍천축협장(농협중앙회 이사)과 홍성권 옥천영동축협장(충북축협운영협의회장)을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정세훈 동진강낙협장(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장)을 선출했다.

각 도별 축협운영협의회장들과 농협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축협조합협의회장들로 구성

된 전국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2월14일 농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2006년 제1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윤상의 신임 회장은 “지난해 농업 총 생산액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초로 30%를 넘어섰다”며 “축산발전협의회 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앙회 축산경제와 논의를 거쳐 축산업이 농촌의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 해결하지 못했던 축산관련 현안문제인 축사시설 농지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협상 등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 전국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축협이 축산인을 위한 조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시장개방협상을 비롯한 축산분야 현안문제에 대해 일선 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대정부 건의 등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전라남도 '32개 축산사업에 5백33억원 투자'

전남도는 올해를 친환경 축산원년 선포를 위한 기반 구축의 해로 삼고 최근 가축분뇨처리 지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등 32개 사업에 총 5백3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축산분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 축산담당 과장, 축산기술연구소,

농협전남지역본부, 한우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축산사업시행 지침'을 시달하고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당부했다.

◆ 레일식송아지 경매장 준공

합천축협(조합장 박중무)은 지난 2월10일 심의조 합천군수와 정희식경남도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레일식 송아지 경매시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박중무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아지 경매시장이 국내 한우산업의 발전은 물론 축산물 개방화시대에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금까지의 거래방식을 과감히 탈피, 문전거래 상인의 농간을 배제하고 믿고 찾는 합천 경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경매시장은 4백50명의 천후식 건물에 전자경매시스템 1식, 레일시설 1식, 자동분무소속시설 1식 등 현대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총 6억여원의 공사비가 투자됐다.

◆ 축산신문사 '한·미·한·캐나다 FTA협상 대응책 워크숍' 개최



축산신문사 주최로 지난 2월 10일 축산회관에
서 '한·미/한·캐나다 FTA협상 대응책 워크
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나라가 한·칠레 FTA 협
상을 체결한 이후 20여개국을 대상으로 FTA 협
상 또는 예비접촉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
후 국제 경쟁력이 낮은 취약산업의 위기감은 더
욱 고조될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
산업인 농업이 이러한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
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 계획
중인 미국과 캐나다와의 FTA 추진과 협정 체결
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영향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대응한 협상대책과 국내대책에 관해 각 단
체의 대표자를 초청 토론회를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워크샵은 좌장인 전남대 조광호 교수의
진행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의 주
제발표가 있는 후 지정토론자로 김경규 과장(농
림부 축산정책과),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
회), 김동성 전무(대한양돈협회), 이근수 지회장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황형성 팀장(농협
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이 자리하여 주제와 관
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자칫 국익을 위
한다는 단순한 논리와 명분을 쫓다보면 식량주
권을 내줄 수도 있는바 선대책 후개방의 대원칙
을 전제하에 FTA 체결이 결코 이롭지 않다는 논
리를 개발해 철저한 이론 무장을 하고 전 국민의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미 FTA의 영향은 우리 축산업은 물론 국민
먹거리 산업전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는 점을 우리 국민에게도 강하게 인식시켜 나가

는 동시에 우리 축산업의 실익을 위한 제도마련
을 추진돼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한 대책 마
련에 전축산인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한
다고 주장했다.

◆울산축협“조합장이·취임식”개최

울산축협은 지난 7일 문수월드컵 컨벤션웨딩
홀에서 조합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길부 국회의원, 서우규 울주군의회 부의장,
신철교 종축개발협회 지부장과 관내 농·축협
조합장, 조합원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오교만 조합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지나온
8년 동안 대과 없이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마무
리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들의 아낌없는 협력 덕분”며 “이제 한 사
람의 조합원으로 돌아가 언제나 조합을 성원하
고 응원하면서 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
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권익증대와 조합 및 지역사회
의 발전을 위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제13대 조합장에 취임한
이정웅 조합장은 “경영관리자로서 주어진 모든
권한과 책임으로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내실
경영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
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신제품 출시

2006년 무지개 사료 축우팀에서는 BOCM
PAUL사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상반기에는 낙농
농가를 위한 착유우 신제품을 하반기에는 비육
우 농가를 위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

래와 같이 전했다.

-착유우 신제품 출시

낙농농가는 착유우의 유량의 증대를 위한 개량과 관리기술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번식율은 감소하고 있다. 우유의 쿼터제 적용으로 농가의 수익은 고정화되어 가고 있어 농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에, 무지개 사료에서는 영국의 BOCM PAUL사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번식을 개선으로 가축의 생애생산력을 높여 농가의 숨어있는 비용을 찾아 주고자 라이프타임 시리즈의 제품을 3월에 출시하게 되었다. BOCM PAUL사와 기술 제휴를 통하여 QFD(어린송아지), PCR(건유우), 골든팻(유지방 증가) 등의 제품이 농가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라이프타임을 통하여 무지개 사료와 BOCM PAUL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육우 신제품 출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계로 비육우 가격은 양극화 되어가고 있으며, 농가도 거세와 장기 비육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브랜드화로 가는 농가와 고숙성장을 통한 단기 비육 농가로 나누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무지개 사료는 기존의 고급육과 단기 비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각각 농가에 맞는 비육 프로그램과 신제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BOCM PAUL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육우의 기술력을 농가에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축우신제품 라이프타임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에서는 영국BOCM PAULS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번식성적을 향상시키는 라이프타임(LIFETIME)이라는 착유신제품을 3월에 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지개사료에서 이번에 출시하는 낙농 신제품인 라이프타임은 에너지수준을 극대화하여 비육초기 에너지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번식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첨가제를 배합하여 번식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의 번식율을 높여 도태에 의한 비용 감소와 추가 우유 생산을 통한 수익으로 농가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성사료, 제 8기 우성사료 여성낙농대학 졸업식 거행



우성사료가(대표이사 지평은) 올해 들어 첫 여성낙농대학 졸업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그랜드 웨딩홀(충북 보은)에서 보은지역내 여성낙농인 17명을 대상으로한 이번 졸업식은 2003년 10월, 제 1기 보령 여성낙농대학 이후, 제 8기 째로 총 193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으로서 명실공히 여성 전문낙농인 육성의 산실로 자리 매김 하고있다고 말했다. 1년 간의 과정으로 구성된 여성낙농대학은 “내 지역 축산발전은 내 손으로..” 라는 캠프플레이즈를 내걸고 2002년 11월 충남 보령지역에서 여성낙농인을 대상으로 첫 개강을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낙농인 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예비모임을 시작으로 조옥향(전국산유능력검정회장)씨의 “여성낙농인의 역할” 이란 특강을 시작으로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의와 현장실무 위주의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낙농인의 삶의 질까지도 배려한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보은여성낙농대학 학생대표인 김점순씨(은선목장)는 수강기간 동안 얻어진 지식이 형식이 아닌 농장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평을 했으며 여성 전문낙농인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일년간 보은여성낙농대학을 이끈 민석홍(우성사료 지역부장)씨는 “낙농산업의 경우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목장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국제경쟁력을 갖춘 여성낙농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손근남 이사(우성사료 축우 PM)는 올해도 전국 어디서나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과 축산 선진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국형 현실에 맞는 서비스

와의 조화를 이룬 토털마케팅을 실현하여 낙농가의 수익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농림부,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

농림부는 「개방화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목표로 한 '06년도 주요 축산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우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소비 증가 추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대 등 기회요인을 살리면서, 시장개방 확대·환경문제·가축질병 등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지속 확보, 친환경 축산업 확산, 가축질병 방역 강화, 한·미 FTA에 대한 체계적 대응, 수출 확대 및 신성장 산업 발굴·지원 등이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이다.

▷ 브랜드육성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분야

개방화 시대에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고,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부는 성공 가능성 있는 한우·양돈 브랜드 80여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이미 선정된 49개 외에 올해 31개(한우 21, 양돈 11)를 새로 선정하여 규모화,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06 예산 1,232억원)하고, 브랜드 경영체간 통합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돼지 사육단계에 선진위생관리기법인 HACCP을 적용하고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가의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판매단계의 HACCP 적용모델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보관·운반단계 HACCP 적용 지침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08년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과 내년중에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그간의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연순환형 축산업 확산 분야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시켜 자연순환형 농업모델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료분류체계를 개편, 퇴비를 유기질 비료에 포함시키고 액비 공정규격을 개정하는 등 퇴·액비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퇴·액비 처방서 제도 활성화, 농장단위 최적 가축분뇨처리 모델 선정·보급 등을 통해 경종농업에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축질병 방역 분야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생국을 오기는 비행기·배·여객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질병 예방과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정 전염병을 재분류하고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 부루세라 병 감염률을 지난해 2.03%에서 1.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감염소 색출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방역도 강화해 나간다.

▷ 한·미 FTA 등 대응

축산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은 협상시 양허 제외, 관세 일부 인하,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등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등 지원방안, 피해구제 방안, 추가 재원조달 방안 등 국내 대책을 금년도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축산국에 연구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협상과 국내대책 수립 전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가 3월말 이후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 23 발표한 「한우산업발전대책」에 따라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와 함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효성 제고, 가축공제 활성화 등 농가 경영안정 장치도 확충해 나간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낙농정책 수립관련 대응방안 적극 모색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낙농정책 연구소 설립 추진 등 낙농정책 수립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06년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

입·지출예산(안)심의와 올 한해 주요 사업 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혼합분유 품목분류 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낙농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등을 올해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정하고 중장기 낙농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성분과위원회의 조직정비와 활동 확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협회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우유소비 촉진 활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시·군 지회 명칭을 시·군지부로 변경하는 임원의 자격을 납유를 하고 있는 자(육우임원별도규정)로 하되 휴업시에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낙농정책 방향정립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일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림부의 낙농정책 목표와 방향정립 없이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낙발협을 통해 수차례의 논의를 가졌으나 어떠한 수정·보완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낙발협 논의 중인 지난해 연말, 일부 지역별로 농림부(시안)대로 추진하려 함에 따라 농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장관은 농림부도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협회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농지 범위에 축사시설을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에 대

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조기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무낙농자조금' 3월부터 거출될 듯

의무낙농자조금 거출이 이르면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무낙농자조금공동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남성우, 농협중앙회 상무,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2월 중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낙농자조금 거출금액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낙농가들이 참여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15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의무낙농자조금 거출여부와 원유 1kg 당 거출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자조금 관리위원 및 감사를 위촉하게 된다.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조금 거출금액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근 원유 1kg당 값이 700원대인 데다 지난해 원유 생산량이 225만인 점을 감안하면 거출금을 3원으로 할 경우 낙농가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거출금은 67억원 안팎이고,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합할 경우 연간 최대 조성액은 13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조사료 공급 확대

농림부가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확대해 조사료 급여비율을 2010년까지 55% 수준까지 향상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국내 조사료 공급량(연간 410만톤)중 양질의 조사료(목·건초)는 120만톤

(2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료가치가 낮은 볏짚(220만톤, 55%)과 수입 조사료(70만톤, 17%)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 47:53인 조사료와 배합사료비율을 60:4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정책=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사료생산 기반 확대가 중요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운반비와 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축협·한우회는 재배농가에 제조·운반비(톤당 5만원) 및 기계·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총체 보리 재배면적을 2003년 859ha에서 2006년 9686ha로 확대하고 2010년에는 1만5000ha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남·북 등 재배여건이 좋은 지역산 조사료를 경기·강원 등 여건불리 지역으로 운송 시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점차 지원액을 상향조정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급=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들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신종식 전북 고창의 낙농가는 "조사료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조사료 급이량 증가는 유질 향상은 물론 사료비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장비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장기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종수 충남대 교수는 "국내 조사료 생산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배

면적인 부족하기 때문인 만큼 휴경 논과 밭을 재배지로 활용하는 농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축산마을' 만든다

양주시 전역에 분산돼 있는 양계와 낙농·양돈·한우 등 축종별 집단화 마을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시는 축산분뇨 및 폐수 등의 민원을 유발하는 축산농가의 집단화를 통한 환경 친화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오는 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정보사회연구원에 '축산마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시는 우선 오는 2007년까지 아파트 인근 지역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개 축산마을을 시범운영하고 2단계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양돈 축산마을 2~3개소를 추가 조성한 다음 최종적으로 양계와 낙농·한우 등에 대한 축종별 축산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축산마을 조성은 환경 친화적 사육여건 조성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축산분뇨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브랜드 육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 낙농 착유 전문도우미와 번식장애 컨설팅 추진

충북도는 낙농산업의 급속한 개방으로 수입 유제품 등 국내시장이 점차 잠식되어 낙농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도내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에 이어 착유 전문도우미 사업에 150백만원과 젖소 번식장애

조기발전 적기치료를 낙농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낙농가 번식장애 건설팅 사업에 106백 만원을 투자하여 낙농산업을 한 단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가기로 했다. 따라서 충청 북도에서는 낙농가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낙농 착유 전문도우미 사업을 확대·보급하여 활력 있는 목장경영이 되도록 2005년도에 이용일수 800일에서 금년에는 1,000일로 사업량을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착유 전문도우미 사업은 가족 중심 노동으로 하루도 쉴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일시적 노동공백을 착유 전문도우미가 목장관리를 대행해 주는 시스템이다.

전남, '친환경 축산' 본격 추진...우수브랜드 개발·품질 고급화로 시장개방 대비

전남도는 도하개발 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등으로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축산업 비전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친환경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축산기관 및 단체, 농가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요 육성 내용을 보면 ▲한우는 전업농 중심의 우수 브랜드 개발 ▲돼지는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양돈업 육성 ▲닭은 계열화업체 중심의 브랜드 품질고급화 ▲젓소는 하위등급 원유에 대한 벌칙 강화를 통한 우유의 품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는 농가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선진 축산농가의 견학을 통한 타 시도 우수 사례를 이번 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음달 안으로 친환경 축산 종합계획안을 마련, 농가설명회와 보완과정을 거쳐 늦어도 5월까지 최종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전남대와 순천대 교수, 한우, 양돈 등 품목별 단체 대표, 농업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전문가 등이 포함된 22명의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제2축산회관 입주 시작

축산관련 단체들의 제2축산회관 입주가 시작된다.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육협회 등 5개 단체는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 제2축산회관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 오는 6일 양육협회를 시작으로 속속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양돈협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tel 02-581-9751))도 25일경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오리협회가 2월말 입주 예정이다. 또한 한국양봉협회도 2월내에 입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제2축산회관이 마련됨으로써 축산관련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협조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2축산회관은 건물면적 690.8평에 지상 6층·지하 2층으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해외소식

미국, 2월 최고 젖소종모우 10두 명단

미국 홀스타인협회가 발표한 '06.2월 기준 미국내 최고 젖소종모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마리온 Veazland Marion-ET TPI+1936
2. 저스티스 O-Bee Manfred Justice-ET TPI +1932
3. 버크아이 R-E-W Buckeye-ET TR +1932
4. 토이스토리 Jenny-Lou Mrshl Toystory-ET TPI +1919
5. 사키 Jeweled-Acres Sharky-ET TPI +1913
6. 스트림 Applouis Jet Stream-ET TR +1840
7. 엘튼 Bo-Irish Alton-ET TPI+1814
8. 제스티 Valley-Drive Zesty-ET TPI +1796
9. 사타이어 GG Addison Satire TPI +1783
10. 엘리건트 Honeycrest Elegant-ET TPI +1782

미국, 항생제 대체 효모당류 유방염 치료

미국 농업연구소는 기존의 항생제를 대체하기 위해 젖소의 유방염 치료에 효모에서 추출한 당류를 주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폴리엑스라는 이 물질은 젖소 유방의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유방염 감염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건유 중인 젖소 40두씩을 이용한 실험에서 폴리엑스를 투여한 젖소는 유방염 감염이 5두에 불과하였으나 항생제 처방우는 16두가 유방염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특허를 출원중인 이 치료방법은 처치비용도 기존의 항생제 치료의 12분이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내 유방염 발생에 따른 피해액은 년 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업연구소 2월 16일자)

중국, 라오닝성서 젖소 괴질 확산

중국 라오닝성의 한 마을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젖소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일재경일보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젖소 괴질은 지난달 8일선양시 캉평현 한 농가에서 시작됐다.

이 병에 걸린 젖소는 많은 양의 침을 흘리고 유방에 수포가 생기는 한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구제역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05년 하반기 생애유량 10만kg우 6두

'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본 도부현(북해도 제외) 젖소중 생애유량 10만kg이상을 생산하며 유지를 3.2%이상을 기록하여 금상을 차지한 젖소는 모두 6두, 5만kg이상 생산하여 은상을 차지한 두수는 28두, 3만kg이상 생산하여 동상을 수상한 젖소는 132두인 것으로 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가 발표하였다. 금상을 차지한 젖소중 생애 유량 11만kg이상을 생산한 젖소는 4두인 데 토치기현에서 사육되는 '크린스타 마사아 스타담'이라는 젖소가 8회 검정유량으로 11만3천722kg, 유지율3.6%로 생애 유량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세계에서 가장 큰 소

뉴질랜드의 한 부부가 기르고 있는 소는 몸무게가 2000kg, 어깨 높이가 1.8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18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마나와투 지역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자넷과 로스 캠벨 부

부가 기르고 있는 이 소는 올해 여덟 살의 사우스 데 번종 수소로 '큰 한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자넷은 "사우스 데번종은 몸집이 크지만 큰 한숨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성질은 유순해서 다루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18일과 19일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애완동물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럭에 소를 태워 데리고 왔으며 여행을 하는 데 이틀이나 걸렸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큰 한숨이라는 이름은 이 소의 전 주인이 붙인 것으로 캠벨 부부는 수년 전에 이 소를 사들여 키우고 있다.

美 광우병 추정 '주저앉는 소' 20마리 식육처리 드러나

미국 축산업계가 광우병 감염 증상으로 추정되는 '주저앉는 소' 20마리를 식육처리한 사실이 미국 농무부의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주저앉는 소'의 식육처리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미국 당국의 감시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일시 중단된 상태인 미국산 쇠고기의 일본 수입재개 여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부 대책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2005년 4월 감사 대상 식육처리시설 12곳 중 2곳에서 총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했다. 그 중 외상 등이 원인으로 확인된 9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20마리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시설에서는 농무부 검사관이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검사 당시 육안검사로는 정상이어서 문제의 소가 주저앉은 뒤에는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 언론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육안검사 시 전두검사를 해야 하나 대개 5~10%의 추출검사에 그쳤던 사실도 지적했다.

뉴질랜드, 유두형태와 유방염은 상관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젖소의 유두형태 및 색깔과 유방염 발생빈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뉴질랜드 링컨대학 연구진이 최근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진은 젖소 유두 439개의 형태와 색상을 수치화한 후 14주간 이들 젖소에서 착유한 5,032개 우유샘플 체세포수와 세균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두모양은 원통형이 51%로 가장 많았고, 깔대기 모양 32.5%, 기타 16.5%는 3가지 다른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특정 형태의 유두모양 또는 색깔과 체세포수, 세균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낙농가들의 일부 젖소 유두형태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고, 우수 종모우종 유두개량능력이 낮은 종모우의 활용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인공수정조합 '05년 정액판매량 사상 최대

북미 지역 최대 인공수정 조합인 미국의 '켈렉사이어'사 '06년 정액 판매량이 사상 최대인 87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04년보다 6%정도가 늘어난 이러한 판매량은 세계 87개국에 수출한 정액 물량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05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9%가 늘어난 190만개로 집계되었다.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영국,

이태리등이며 가장 많이 팔린 홀스타인 정액은 '휘스테드 에모리 브릿츠(7H05708)'로 '05년에만 25만개의 정액이 판매되었으며 '샌드벨리 휘비든(7H05687)', 오비 맨프레드 저스티스(7H06417) 등이 20만개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 고기 미네랄 함유량 격감

철 · 마그네슘 등 60년전보다 절반 뚝·영 학자 "집약적 기업생산 탓" 우유와 고기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6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일 보도했다.

영양학자인 데이비드 토마스가 1940년과 2002년 영국 정부의 식품 성분분석표를 비교·분석해 이달치 <식품> 잡지에 실은 보고서를 보면, 소 엉덩이살 스테이크의 철 성분은 55%, 마그네슘은 7% 감소했다. 15가지 육류의 철 함유량은 평균 47% 줄었다. 우유의 철분 함유도 60% 이상 줄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각각 2%와 21% 감소했다. 크림과 8종의 치즈에서는 50% 이상 철분이 감소했다. 체더치즈는 칼슘 9%, 마그네슘 38%, 철분 47%가 감소했다. 파르메산 치즈에서는 마그네슘이 70% 줄었고, 철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헨티나, 북동부에서 구제역 발생 확인

아르헨티나 농축산물 위생사업단(SENASA)은 2월 8일 북동부 코리엔테스시에서 약 25km 떨어진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 3천67(소 3천12두, 양 30두, 염소 25두)두에 대한 구제역 혈청 검사결과 18~24개월령의 브라포드종 소 70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세를 확인하고 국제수역국(이티)에 보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구제역은 바이러스 혈청 O형으로 알려졌으

며 관계당국은 인근농장의 가축이동금지 및 의심축 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05년 1월 국제수역국으로부터 코리엔테스주를 포함한 남위42도 이북지역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지위를 회복한바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05년 세계 우유생산량 2.5% 증가

'05년도 세계 우유생산량이 국제적인 유제품 가격 호조에 힘입어 2.4% 증가된 것으로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04년 1.9%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미국과 인도의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인도는 기후가 좋아 조사료가 풍작을 거두었고 국내외 유대가격의 호조로 4%대의 생산량증가율을 보여 아시아 전체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우유생산국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생산 증가율이 4%이상인 반면 선진국들은 1%대 증가에 머문 것으로 발표되었다.

러시아서 대규모 구제역 발생

中과 국경지역서 소·돼지 수십마리 감염

러시아의 한 외신은 지난달 31일자로 러시아 동부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펀드나야보르자(Srendnaya Borza)지역에서 대규모의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서 수 마리의 소와 수십마리의 돼지가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의 비상사태국의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2005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